

4인가족 김장 18만원

전년보다 14% 줄어

올해 김장비용은 18만1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16일 4인가족 기준 김치비용을 13개 품목별로 따져본 결과 배추 3만3000원(1650원·20포기), 무 1만3000원(1300·10개), 고춧가루 4만7988원(2만5800원·1.86kg), 깨마늘 8400원(7000원·1.2kg), 끓 3만3000원(1만6500·2kg) 등 총 18만1348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건으로 김장을 담그 때의 비용 21만975원보다 14%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에 비해 배추 비용이 42.8%(2만4700원), 무 비용이 18.5%(2950원) 각각 줄어든 반면, 고춧가루(45.5%, 1만4990원)와 끓(23.3%, 6242원) 비용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고 aT는 예상했다.

aT는 “올해 배추 등 채소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작황이 좋아 기상이 변이 없는 한 채소가격이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가격이 크게 올랐던 건고추 가격도 점차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0배 몸집’ 금광기업****세운건설 인수추진**

(주)세운건설(대표이사 봉명철)이 법정관리 중인 금광기업(주) 인수에 나섰다.

16일 광주지법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세운건설은 금광기업을 법정관리하는 광주지법 민사1부에 금광기업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세운건설이 금광기업의 채권 일부를 갚을 재력이 있다고 보고 매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운건설은 시공능력평가 기준으로 금광기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쳐 최종 성사 여부에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순에 본사를 둔 세운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378억여원으로 전국 440위다. 금광기업은 시공능력평가액이 세운건설의 11배가 넘는 4310억원(55위)을 기록했지만 자금난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법정관리 중이다.

로또복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3	29	31	33	34	44	40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0	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4,687,384	37			
3	5개 숫자 일치	1,613,584	1,254			
4	4개 숫자 일치	50,000	62,251			
5	3개 숫자 일치	5,000	1,060,512			

**EU 수출 지역기업 관세혜택 46% 그쳐****한-EU FTA 인증수출자 광주 32곳·전남 20곳****5년 방관했다 작년에야 지정…무역수지 악화 불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한-EU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8206곳의 인증수출 대상기업 가운데

32곳, 전남은 42곳 가운데 20곳으로 각각 45%, 47%에 그쳤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청이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인증하는 증명서로, EU에 6000유로(약 900만원)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이를 받아야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의원은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10월 1일 현재 인증수출자는 4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한-EU FTA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를 먼저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5년간 수

출에 직접 영향이 미치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방관했다가 지난해 6월에서야 인증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졌고, 한-EU FTA 발효 3개월 한국의 무역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19억달러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3개월의 초라한 성적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한-미 FTA 속도전’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보완대책 속도전’으로, 제대로 된 협상 검토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몸에 좋은 우리 농산물 사세요’**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와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최근 광주경찰청사 1층에서 농산물을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 평동농협 등이 생산한 오이·방울토마토·고추 등 20개 품목, 총 2000여 만원 어치가 거래됐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17% 쌓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나왔다****오늘부터 판매**

기존 자동차보험보다 17%나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출시된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은 서민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기존 상품에 비해 싸게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17일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한화손해보험과 그린손해보험, 현

대해상, 동부화재, 더케이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오는 20일, AXA손보는 21일, 메리츠화재는 26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상품을 각각 내놓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할인율은 기존 오프라인 상품의 평균 보험료보다 17%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시 보장 내용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다.

예를 들어 아반떼XD 2001년식을

가진 만 41세의 자동차보험 가입 경

력 3년 이상의 남성이 가족한정으로 35세 특약에 가입할 경우 서민우대 보험은 가입비가 57만4450원으로 일반 자동차보험(69만4610원)에 비해 12만160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누

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저소득계층으로 생계목적의 중고 소형차 1대를 소유한 사람만 해당한다.

저소득 계층으로 생계목적의 중고

소형차 1대를 소유한 사람도 ▲만 35

세 이상이면서 가계소득이 4천만원 이하 ▲만 20세 미만의 부양 자녀 ▲

비사업용 중고소형차 1대(10년 이상

경과한 1600cc 이하의 일반 승용

또는 1t 이하 화물차량) 소유라는 조건

을 모두 충족해야 서민우대 자동차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손보사들의 이번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출시는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발표에 따른 후속 대

책으로 나왔다. /연합뉴스

**장흥 용산농협 휴대용 올벼쌀 인기**

장흥 용산농협(조합장 이경수)이 1회용 커피믹스처럼 휴대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현미 부드러운 백자골 올벼쌀’을 내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소포장 제품을 선보였다. 올벼쌀은 찹쌀을 현미상태로 가공한 것으로 단백질·불포화지방·6비타민B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

가격은 20g 10개들이 2500원으로 저렴. 올벼쌀 총 매출은 지난해 1억5000만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문 080-699-5800. /박정욱기자 jwpark@

전산교육센터, 헬스장, 복지매장 등이 들어서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와 민노당 등은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과 주체 등이 복지관 건립 목적과 맞지 않는 의견을 최근 광주시에 제출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박귀선 조직국장은 “복지관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려면 노동자 단체 등 민간단체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남산단 입주업체들은 관리 공단이 사용하던 건물을 헐어 현재 건물을 지은 민관공단이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남산단관리공단 관계자는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근로자 복지에 힘을 쓰는 상황에서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운영 주체를 바꾸려면 관리 공단 건물을 사용했던 이 복지관은 광주시가 하물고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신축했다.

하남산단관리공단은 하남산단 입주업체들이 출자해 설립했다.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6천114m<sup>2</sup>)로, 관리공단 사무실, 음식점, 어린이집, 취업정보센터,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위탁기간 만료 ‘하남근로자복지관’****공단 VS 민간 운영 놓고 시끌****민노총·민노당 ‘이견’****市, 내년 상반기 결정**

광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주체를 놓고 하남산단 입주업체와 노동자 관련 단체 등이 이견을 보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광주시와 하남산단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내년 5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종합복지관 운영주체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노당 등이 민간위탁 등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복지관은 2009년 개관 이후 사업단위인 하남산단관리공단이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81년부터 하남산단관리공단 건물로 사용했던 이 복지관은 광주시가 하물고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신축했다.

하남산단관리공단은 하남산단 입주업체들이 출자해 설립했다.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6천114m<sup>2</sup>)로, 관리공단 사무실, 음식점, 어린이집, 취업정보센터,

성은 다소 줄어들 여지가 있다.

또 미국의 경우 애플을 비롯해 IBM, 인텔, BOA, 시티그룹 등 주요 기업들의 분기 실적과 9월 산업생산, 물가지표 등 경제지표 발표가 이어지며 다시 한번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9월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밟았으며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다시 큰 폭으로 확대되는 요인이 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로 시작된 3분기 어닝시즌 투입과 지수 상승탄력 악화 가능성은 고려할 때 실적 모멘텀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통신부문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휴대폰 관련 부품주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연말까지를 겨냥한 업종선택을 할 경우 4분기 영업이익 개선세가 뚜렷한 반도체, 하드웨어, 전기장비, 운송, 기계, 소프트웨어, 자동차 및 부품 업종 중심의 대응이 유망해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상승세로 돌아온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9월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밟았으며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다시 큰 폭으로 확대되는 요인이 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상승세로 돌아온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9월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밟았으며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다시 큰 폭으로 확대되는 요인이 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상승세로 돌아온 들판에

전체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상승세로 돌아온 들판에

전체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상승세로 돌아온 들판에

전체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상승세로 돌아온 들판에

전체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상승세로 돌아온 들판에

전체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